



Received: 2026/07/14
Revised: 2026/07/27
Accepted: 2026/08/20
Published: 2026/09/30

***Corresponding Author:**

Kyung Cheol Kim

Tel: +82-55-549-1000

E-mail: kkim@navy.mil

K-해양방산 발전을 위한 해군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언

Naval Support Measures and Policy Proposal for Development of K-Marine Defense Industry

김경철*

해군군수사령부 사령관

Kyung Cheol Kim*

Commander, Republic of Korea Naval Logistics Command

Abstract

첨단기술 중심의 전쟁양상 변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아세안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K-해양방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K-해양방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해군 지원 방안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수출 현황과 제한요소를 분석하고,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 개최, 연합훈련, 교육 훈련, 해양안보 ODSA 등 4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K-해양방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아세안 국가와의 실질적 안보협력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Driven by advanced technologies, escalating United States-China rivalry, and the evolving ASEAN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maritime defense industries has expanded substantially. This study identifies support measures by the R.O.K. Navy and policy proposal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maritime defense industries. By evaluating current defense exports to ASEAN countries and identifying key industry growth constraints, this study proposes four major support measures: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Naval Logistics Cooperation Conference, launching combined exercises for countries operating transferred or exported naval vessels,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and establishing a maritime-security ODSA framework.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maritime defense industries and foster practical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Keywords

K-해양방산(K-Marine Defense Industry), 해군 지원 방안(Naval Support Measures), 아세안(ASEAN), 연합훈련(Combined Exercise),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International Naval Logistics and MRO Cooperation Forum), 해양안보 ODSA(Official Development and Security Assistance)

1. 서론

미-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 질서는 다극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이해가 격돌하는 요충지로서 재해·재난, 해적, 국제테러, 사이버범죄 등 복합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실시간 해양감시와 정보공유, 해양영역인식(MDA)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해군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K-해양방산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정 양도·수출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 초계함·호위함·잠수함을 양도 및 수출하며 해양안보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위상을 전환하였고, 외교·안보·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K-해양방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함정 수출을 넘어, 운용·정비·교육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군 군수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양도된 노후 함정의 잦은 고장과 정비역량 부족, 수출 함정의 기술지원 한계, 미국·유럽의 방산통제 강화, 개도국 위탁생산을 통한 경쟁 심화 등이 주요 도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해양방산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K-해

양방산 현황 및 대외환경을, 제3장에서는 발전의 제한요소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 4가지 해군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제5장에서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을, 제6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K-해양방산 현황 및 대외환경 분석

2.1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

아세안은 세계 교역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끼고 있어 해양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역내 해양영토 분쟁 격화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영역인식(MDA)과 전투력 현시를 통한 군사적 문제해결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해군력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2 아세안 국가의 해군력 현대화 동향

필리핀 해군은 자국 해양방위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호위함·초계함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은 노후 초계함 양도에 이어 신조 함정 수출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방산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전력 증강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화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말레이시아·태국 등도 해상초계 능력 향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2.3 K-해양방산 수출 현황 및 성과

K-해양방산은 최근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방산 수출액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이 전체 해양방산 수출의 약 40% (추정)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잠수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해양 감시 레이더 및 전투체계 등이 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방산 업체들은 기술이전, 현지 협력업체 육성, 통합지원체계(IPS) 패키지 제공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4 주요 경쟁국의 해양방산 지원 전략 비교 분석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잉여방위물자(EDA)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양 안보지원을 체계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필리핀에 EDA(excess defense articles) 프로그램을 통해 퇴역한 해안 경비대 경비함(Hamilton급) 3척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FMS(foreign military sale)를 활용하여 레이더, 무기체계 등을 판매하여 성능개량과 정비교육,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본은 2023년부터 도입한 공적안보지원(OSA) 제도를 통해 감시장비, 순찰선 등 군사 장비와 인프라를 직접 지원하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아세안 해양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태국 S26T 잠수함(Yuna급 수출형) 수출에서 보듯이 발전기(MTU Eng') 등 주요 핵심구성품 등이 대중국 수출 승인이 되지 않으면서 8년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태국 정부는 장기간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해 중국산 발전기 엔진으로 변경 채택하여 28년말 인도 예정이다. 미얀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각종 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전자장비 신뢰성, 예비부품 조달, 유지 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어 다양한 국가의 장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3. K-해양방산 발전의 제한요소 분석

3.1 양도·수출 함정의 운용 유지 문제

노후 함정 양도의 경우 비록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정비를 마치고 양도를 하더라도 함정 자체의 노후가 심하여 주요 장비의 고장이 잦고, 인수 국가의 정비역량 부족과 수리부속 공급망 미비가 더해져 함정 가동률이 낮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신조 함정 수출의 경우,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는 신형함정 확보에만 관심이 있고 함정의 정격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비에 대한 예산반영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계획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해군과 조선소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의 제도 및 예산 문제로 인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

다. 이로 인해 해당국 해군은 한국 해군과 조선소에 대한 아쉬움이 크며, 이는 K-해양방산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3.2 기술지원 및 군수지원 한계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약 11억 달러 규모의 1,400톤급 나가파사급 잠수함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건조기술 이전, 승조원 교육 등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함정은 약 30년 이상 운용되는 무기체계로 예비부품 공급, 정기적 창정비 수리, 성능개량, 기술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해당국의 초기 획득 비용 이외의 운용 유지 예산 부족, 현지 정비능력 부족 및 정비지원 체계 미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함정 운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잠수함 수출사업은 기술이전을 포함한 대표적 방산 수출사례이지만,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technology release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일부 생산기술만 확보되어 핵심체계 개발, 유지보수 능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방산 수출의 성공 여부가 단순한 기술이전보다 수출 이후의 군수지원,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양수 또는 구매국에게 함정 총수명주기 비용 중 60~70%를 차지하는 운영유지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적극 권고하고, 우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3.3 K-해양방산 지원을 위한 해군 차원의 지원 방안 부재 및 제도적 제약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 지원은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군의 역할은 함정 운용과 군사교류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 주요 방산 수출국은 해군이 연합훈련, 함정 운용지원, 군수지원,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방산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군이 지원하여 진행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과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에서는 해양방산 전시 및 수출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일정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규모와 방문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MADEX는 해양

안보와 해군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해양력 심포지엄과 연계되어 있어 군수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YIDEX에서는 주재 무관단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지만 무관들의 업무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수출·양도 함정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정비지원, 수리부속 공급, 성능개량 등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해군 차원의 협조체계는 군수정보, 정비 및 운용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해군 국제군수정보지원체계(NILISS)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활용도가 낮으며, 양도·수출국 20개국 중 9개국만 현재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4. K-해양방산발전을 위한 해군지원 방안

4.1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 개최

양도·수출 함정 운용국가의 군수사령관급 장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며 향후 정례 협의체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 군수사령부, 정부기관, 국내 조선소, 방산 업체, 교육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학 협력 체계로 구성한다. 포럼에서는 참가국 함정의 운용 및 정비 현황을 공유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수리 부속 확보방안, 성능개량 요구사항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국내 조선소는 함정 건조능력 및 MRO 역량을 소개하고, 방산 업체는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지원과 성능개량 방안을 공유하여 후속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해군 군수사와 근접한 경남방위산업클러스터, 국립 창원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연계한다면 해양방산 분야 통합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해양방산 분야 통합 클러스터는 K-해양방산 수출 경쟁력 향상, 중소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함정 수출 이후 MRO 시장 선점, 지역 일자리 창출, 국가 방산 수출 플랫폼 발전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운영유지를 포함한 수출 전주기 지원체계가 가능하여 K-해양방산 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한국 공군도 방산수출 지원 및 군수분야 협력을 위해 '10년부터 국산기 국제기술협력기구(K-TCG) 국

제회의를 군수사령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협력체계가 공고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산지원 효과도 증가하고 있다.

4.2 양도·수출 함정 대상 국내 연합훈련 추진

대한민국 해군 주도로 양도·수출 함정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연합훈련을 추진한다. 타 연합훈련과 차별되는 점은 훈련 참가 함정에 대해 해군 정비창, 조선소, 방산 업체 등과 협력하여 장비 상태 진단, 유·무상 수리 지원, 한국 해군의 잉여 수리부속 무상지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비지원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이때 참가국들은 한국 해군의 축적된 장비 운용능력, 정비 노하우를 전수받고, 조선소와 방산 업체를 통한 주요 수리부속 확보 및 승조원 교육 등으로 높은 수준의 함정 운용능력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 해군과 해상에서 함께 훈련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해군의 최신 국내개발 유도무기 전투탄실사를 참관하게 함으로써 유도탄 수출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4.3 장비·정비 분야 교육훈련 지원

현대 해양방산은 함정과 무기체계를 단순히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운용·정비·군수지원을 포함한 전주기 지원체계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첨단 함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무기체계, 센서체계 등으로 복합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구매국이 자체적으로 운용능력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함정 수출·양도와 교육 훈련을 연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 훈련 지원체계로 첫째, 수출함정에 대한 전투체계종합능력평가(K-CSSQT) 지원이다. 이는 함정의 탑재 센서와 무장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조원 대상 장비운용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함정의 전비태세 수준을 단기간에 매우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둘째, 정비 전문 인력 양성이다. 함정의 장기간 운용을 위해서는 정비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정비창의 창정비연수원을 중심으로 방산기업과 함께 이

론교육,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정비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함정 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수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 해군의 군수 정보 관리,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당국의 독자적인 군수 관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ICT 기반 교육 훈련체계 지원이다. 추진체계 및 전투체계 운용, 손상통제 등을 가상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원격교육 체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추가하여 원격 교육체계를 활용한 원격 정비지원체계로의 발전도 필요할 것이다.

4.4 해양안보 ODSA 체계 발전

국제 안보환경은 국가 간 경제협력 중심에서 안보협력과 국방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산업과 우수한 함정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함정 수출과 양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외협력은 개발 협력(ODA), 국방 협력, 방산 협력, 군수 지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행 한국 ODA는 OECD/DAC 기준에 따라 비군사적 목

Table 1. Comparison between Korea's ODA and Japan's OSA

Category	Korea ODA	Japan OSA
Purpose	Support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rengthening security and defense capabilities
Target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residents	Allied nation military forces and security agencies
Content	Education, health, infrastructure, and administrative capacity building	Radar, communication equipment, surveillance systems, guard posts, etc.
Nature	Development cooperation	Security cooperation
Representative Agency	KOICA, EDC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적에 한정되어 방산 수출과의 연계가 불가하다.

반면 일본은 2023년 도입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원조와 별도로 우방국의 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OSA는 방위 장비 제공, 감시체계 구축, 해양 안보 역량 지원 등을 통해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해양안보와 개발 협력을 통합한 가칭 “해양안보 ODSA(official development security assistance)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존 ODA와 일본의 OSA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한국의 해양방산 경쟁력을 반영한 해양안보(ODSA)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ODA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ODSA는 개발 협력을 기반으로 해양안보 역량 강화와 방산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해양안보 구축, 해군력 발전, 방산협력, 군수지원, 장기적 파트너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ODSA는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1단계는 기존 개발협력(ODA)이 출발점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 해양안전 지원, 해양행정 역량 강화, 정보통신 기반 구축, 인적역량 개발 등이다. 정부, 해군 및 방산기업은 협력하여 현지 정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국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2단계는 해군협력이다. ODSA 기반이 구축되면 해군 간 협력을 확대한다. 주요사업은 연합훈련, 군수사령관 등 고위급 교류, 함정 상호방문, 교육 훈련,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개최·협력 세미나 등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합훈련을 위해 방한한 수출·양도함 대상 수리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다. 3단계는 장기적인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와 해군은 정비 교육, 기술지원, MRO 추진, 성능개량, 수리 부속 확보 등을 수행한다. 이 단계는 K-해양방산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최종 4단계는 전략적 해양안보 협력이다. 정례 연합훈련, 해양 재난 대응, 군사적 협력 체계 등을 발전시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ODSA 체계가 구축되면 한국의 개발협력과 국방협력이 통합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외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의 해양안보 역량과 자주적인 함정 운용능력이 향상되며 한국산

함정의 신뢰성이 높아져 후속 함정 수출과 군수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 조선소와 방산 업체의 MRO·장비 수출, 성능개량 사업이 활성화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양도·수출한 군함을 동해에 모을 수 있는 세계적 리더십을 갖춘다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보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5.1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함정 정비, MRO, 교육 훈련, 성능 개량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수출 함정의 운용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추가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ODSA 차관 연계 수출은 개도국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 수출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군수지원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방산 업체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 확대는 조선·방산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5.2 해양안보 측면의 기대효과

제안된 해군지원 방안이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적인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연합훈련,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 개최, 방산 네트워크 구축,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형성된 조직 및 인적 네트워크는 한·아세안 안보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여 역내 해양안보 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정세에 대한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5.3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첫째, 정부, 연구기관, 방산 업체와 해군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민·관·군·연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것은 해군 또는 업체, 기관 등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해양안보 ODSA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방산 수출과 개발 협력의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연합훈련·장비진단·교육

훈련 예산을 국방예산 및 ODSA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이순신방위산업전 등 국제 방산 전시회를 K-해양방산 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지지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K-해양방산 발전을 위한 해군지원 방안으로 ① 국제해군 군수 및 MRO 협력 포럼 개최, ② 양도·수출 합정 대상 국내 연합훈련 추진, ③ 장비·정비 분야 교육 훈련 지원, ④ 해양안보 ODSA 체계로의 발전 등 4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운용·정비·훈련·외교를 아우르는 종합적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지향한다.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해양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국가 간 거래를 넘어 “함께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별 맞춤형 지원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H. J. Lee, ‘Naval Support Strategy for ASEAN Maritime Security and K-Marine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Monthly Defense Diplomacy Journal, October 2025.
- [2] Se Hwan Park & Seung-Won Suh,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s Transfer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oward Southeast Asia: Military Self-Reliance, Great Power Diplomacy and Maritime Security,’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NO. 62, 2022.
- [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epublic of Korea, Defense White Paper 2024,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4, pp. 178–200.
- [4] Ministry of Defense Japan, Defense of JAPAN 2024, Tokyo: Ministry of Defense, 2024, pp. 36–39.
- [5] DSCA,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Chapter C5, Appendix 8.
- [6] Hiroshi Kimura,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ODA to OSA—Origins, Evolution, and Emerging Trend,’ Asia and the Global Economy, VOL. 5, NO. 2, 2025.
- [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4, Routledge, 2024, pp. 82–213.
- [8] NATO Standardization Office, Allied Joint Doctrine for Logistics (AJP-4), Edition B, Version 1, NATO Standardization Office, 2018.
- [9] Gregory Vincent Raymond, ‘Naval Modernization in Southeast Asia: Under the Shadow of Army Domina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9, NO. 1, 2017.
- [10]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2024 Sustainability Report, Gyeongnam: Korea Aerospace Industries, 2024, pp. 60–61.